

#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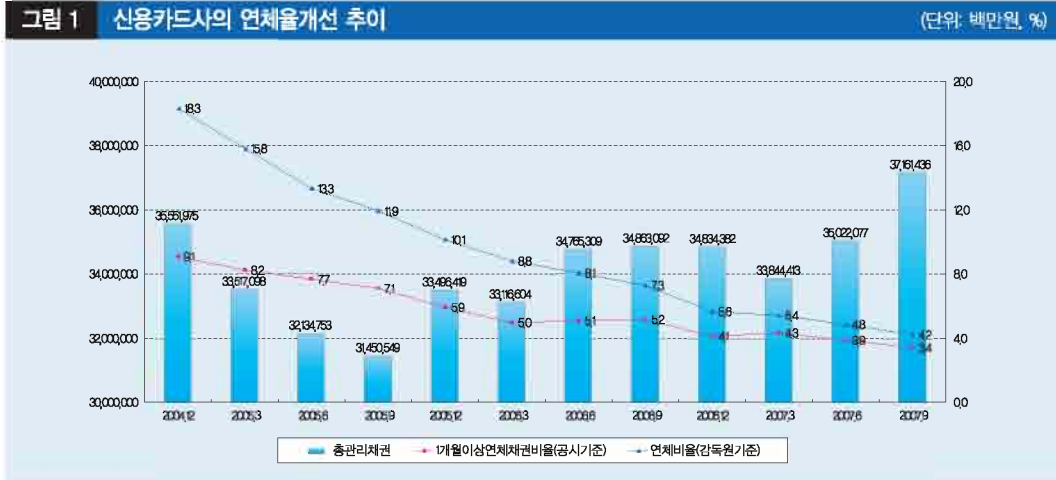
황은수 SF개발실 수석연구원 ☎02-2070-6321 hes@nicerating.com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신용카드위기를 겪은 이후 대규모 부실처리를 바탕으로 2005년 3분기부터 외형이 회복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전반적인 실적향상과 함께 재무안정성이 제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연체율 하락에 따른 충당금적립부담 감소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의 발생이 이러한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인이었으나, 최근의 연체율 변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동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04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개선상황과 세부변화내용을 신용카드 개인회원들의 대환대출동향, 정상입금률, 회수율 및 전이율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신용카드사 연체율 개선 현황

### ● 감독원기준 연체채권비율 크게 개선(2004년말 18.3% → 2007년 9월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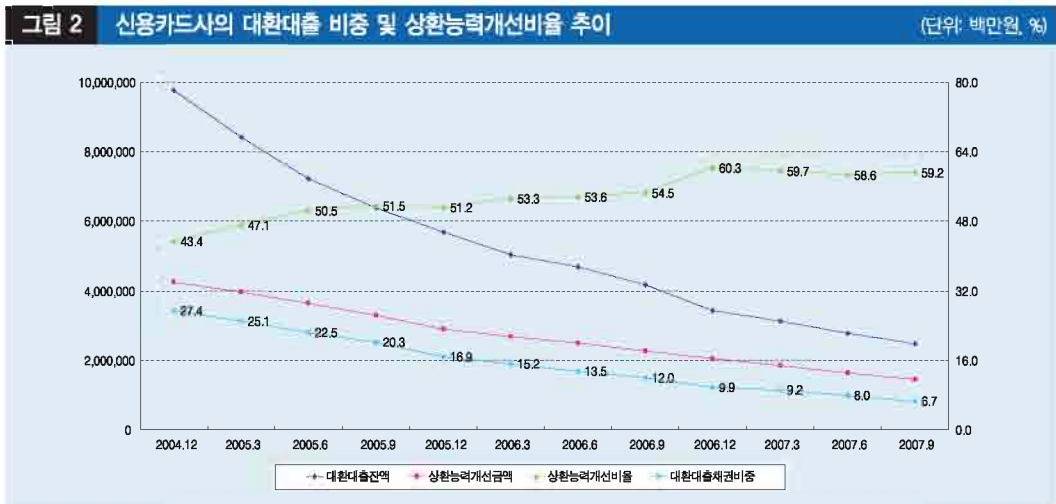
2007년 9월말 현재 신용카드 전업사들의 1개월이상연체율(공시연체율)은 3.4%이며 대환을 감안한 금융감독원기준 연체채권비율은 4.2%로 2004년말의 9.1% 및 18.3%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1개월이상연체채권(공시기준)은 12,731억 원 및 감독원기준 연체채권잔액은 15,603억 원으로 2004년말의 32,219억 원 및 65,176억 원 대비 39.5%, 23.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구 엘지카드(현 신한카드)의 대규모 부실채권의 상각처리 등을 포함하여, 업계 전반의 적극적인 채권관리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외형상 연체율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 1. 대상회사는 엘지카드(현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현 엘지카드에 합병), 롯데카드로 2007.10.1 통합신한카드 출범이전을 기준으로 함  
 2. 각사의 총관리채권의 금액합산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할부채권 등이 포함됨

● 총채권대비 대환대출비중 또한 크게 감소한 6.7%

특히 대환대출규모가 2004년말 총채권 대비 27.4% 수준인 97,564억 원에서 2007년 9월기준 6.7%로 크게 감소한 24,738억 원을 시현하면서 전반적인 채권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한계대출 회원들의 신용도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환대출잔액 감소와 한계대출자들의 신용도 회복으로 대환대출중 우량대환대출 즉, 대환대출 대비 상환능력개선금액 비율이 2006년말 이후 60% 내외의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연체율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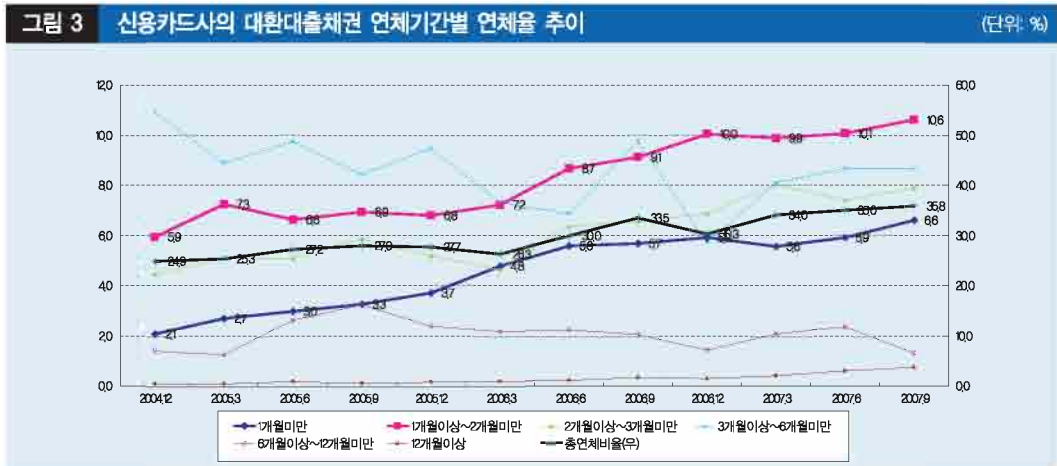
## II. 신용카드채권의 연체율 변화추이

그러면 상기에서 알아본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지속적인 연체율개선과 대손충당금적립부담 감소 등에 힘입은 실적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연체율 하락 추세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며,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회원확보 등을 자제하고 회원들의 신용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리스크관리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카드사들의 할부채권등을 제외한 신용카드자산(관리자산기준)의 연체율 변화를 개인회원들의 정상입금률, 회수율, 전이율 및 대환대출동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최근의 연체율 변화 조짐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 ● 2006년 6월 이후 대환대출 연체율 증가세로 반전

우선 신용카드채권중 가장 건전성이 열위한 대환대출의 연체율 추이를 연체기간별로 살펴보자. 2004년 대환대출총연체율은 24.9%로 이중 1개월미만연체율이 2.1%, 1개월이상연체율이 22.8% 수준이며, 규모로는 총대환대출 97,564억 원 중 총연체채권은 24,258억 원으로 이중 1개월미만연체채권이 2,038억 원, 특히 1개월이상 연체채권중 3개월이상 6개월미만연체채권 비중이 43.8%로 가장 큰 규모인 10,62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독원기준 대환대출을 감안한 연체채권비율이 계속 하락 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7년 9월말 대환대출총연체율은 35.8%로 2006년 6월의 30%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개월미만연체율의 경우도 2004년말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 9월말 6.6% 수준에 이르고, 1개월이상~2개월미만연체율(2004년 5.9% → 2007년 9월 10.6%)의 상승으로 전이되는 등 실제적인 대환대출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7년 3분기 들어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5% 후반대를 유지하던 1개월미만연체율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제반 대환대출채권의 연체율 상승속도가 다소 빨라지는 모습이다. 상환능력개선비율은 2006년 12월 60.3%의 최고수준을 보인 이후 2007년 9월까지 59%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연체율 상승은 우량대환대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환대출과 연체금액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환대출연체율의 상승은 핵심적인 연체율관리지표인 대환을 감안한 감독원기준 연체채권비율(2007년 9월기준 4.2%)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 1. 대환대출채권은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거나, 연체발생이 확실시 되는 채권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행한 모든 채권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제도 등 자체 또는 공적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절차가 확정된 채권을 포함  
 2. 우량대환대출채권은 1) 총채무액의 30%이상 납입된 대환대출채권(총채무액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신용공여 금액으로서 대환대출 취급시점에서의 미상환 채권잔액) 2) 기준일로부터 총 약정기간의 1/3 이상 동안 연체(1개월 이상)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채권, 3) 기준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 연체(1개월 이상)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채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채권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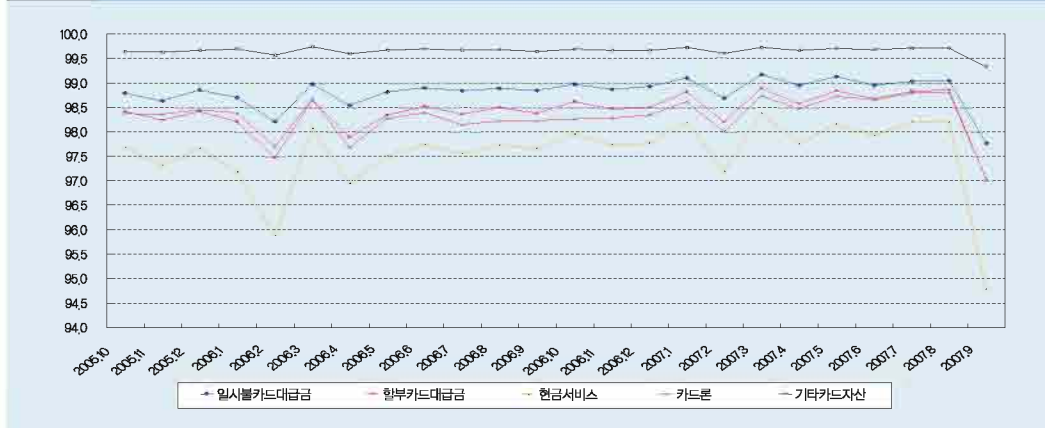
### ● 신용카드채권의 정상입금률 하락 조짐

신용카드 채권중 상대적 자산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하위등급의 대환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연체없는 정상회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납입하고 있는지 2004년 10월 이후 월단위로 청구액 대비 납입액비율인 정상입금률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지표 또한 결론적으로 2007년 3분기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현금서비스 입금률이 그동안 97%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던 상황에서 2007년 9월말 기준으로는 94.8%로 전분기의 98.2% 대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차입여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수요자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일시불카드대금금 및 할부카드대금금 또한 정상입금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동추세가 3분기의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전분기대비 안정적인 입금률을 보였던 2006년 3분기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로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연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지만 정상입금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신용카드채권 연체율의 추가적인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월별 청구액 및 입금률 추이

(단위: %)



- 주 1. 전월 정상입금회원 대상 당월 월말까지 정상입금을 기준  
 2. 월중 중도상환 포함기준(당월 정상입금원금/당월 정상청구원금)  
 - 중도상환금액은 결제일에 정상납입된 것으로 간주  
 - 입금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입금금액만큼 청구된 것으로 간주  
 3. 월중 연체이자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자금액 제외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월기준 연체없는 정상입금회원이 당월정상청구금에 대해 당월 정상입금액비율인 정상입금률은 대환대출이 가장 낮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대급금 및 일시불대급금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도 신용판매부분(할부대급금과 일시불대급금)이 현금대출자산대비 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10월기준 대환을 제외한 카드자산의 평균 입금률은 약 98.5%이며 2007년 9월에는 97.1%로 소폭이지만 하락한 상태이다. 그러나 동기간중 현금서비스의 정상입금률이 97.7%에서 94.8%으로 대환대출은 95.4%에서 91.2%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상대적인 감소 폭은 작지만 일시불대급금의 경우도 평균 99%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분기 들어서는 97.8%로 하락하고 있어 신용카드채권 전분야에 걸쳐 개인회원의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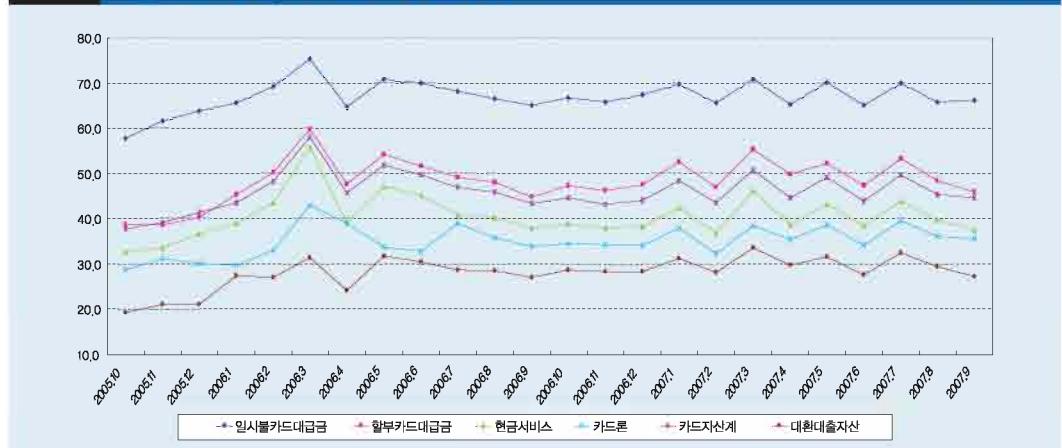
#### ● 연체채권의 회수율 하락 진행

정상입금률 분석이 연체없는 정상회원 신용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라면 회수율분석은 정상회원과 대환대출회원 사이 회원의 자금상황 악화와 장기연체채권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연체채권에 대한 카드사의 회수율을 보면 정상입금률보다 선행적으로 회원들의 신용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환대출채권부터 시작하여 연체채권회수율 및 현금서비스 정상입금률 순서로 신용도 하락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회수율관점에서도 일시불카드대급금의 회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연체율분석 전 과정을 통해서 신용판매채권의 자산의 질이 현금대출자산에 비해 우량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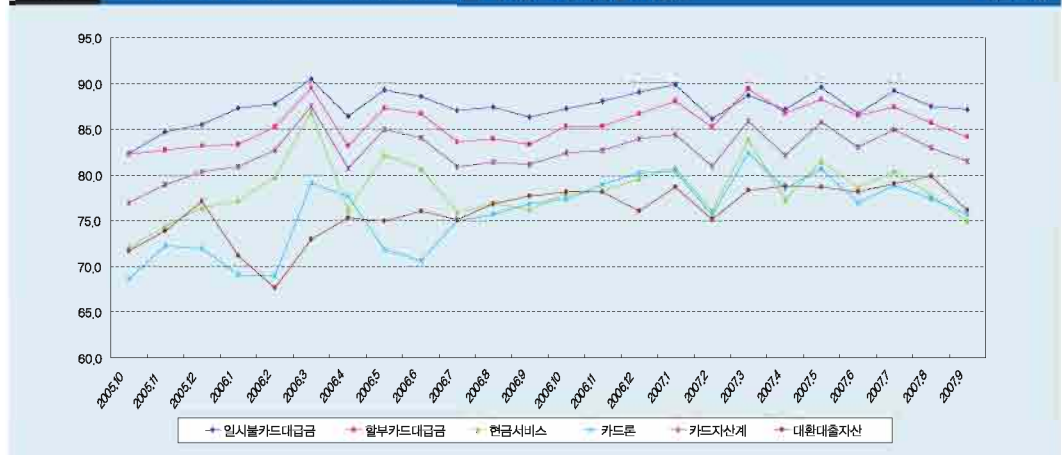
대환대출을 제외한 카드자산전체 기준으로 2007년 3월 50.6%의 회수율을 보인 이후 2007년 9월 기준으로는 과거 1년중 가장 낮은 수치인 44.5%를 보였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우량한 자산인 일시불대출금의 회수율 역시 2007년 3월 70.6%의 최고점을 보인 이후 9월에는 66.0%를 보였으며, 현금서비스의 회수율은 46.1%의 최고치에서 2007년 9월에는 37.6%로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론과 대환대출의 회수율 추이도 현금서비스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등 회수율이 2007년 3월 이후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특히 전체회수율에서는 2007년 8월의 수치(45.3%)가 2007년 6월 회수율(43.8%)보다 높았으나, 1개월연체채권기준으로 8월의 회수율이 82.9%로 6월의 83.1%보다 하락하고 9월에도 81.5%로 추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3분기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회수율 추이상으로 2007년 3월까지 지속 상승하던 개인회원의 신용상태는 그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하반기 들어서는 회수율 측면에서도 회원들의 신용도 하락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율 추이** (단위: %)



**그림 6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율 추이(연체 1개월 기준)** (단위: %)



주 1. 관리자산 및 연체원금 기준(미도래금액 제외)  
 2. 현금회수율 = 월중 원금현금회수액 / 월초 회수대상 연체원금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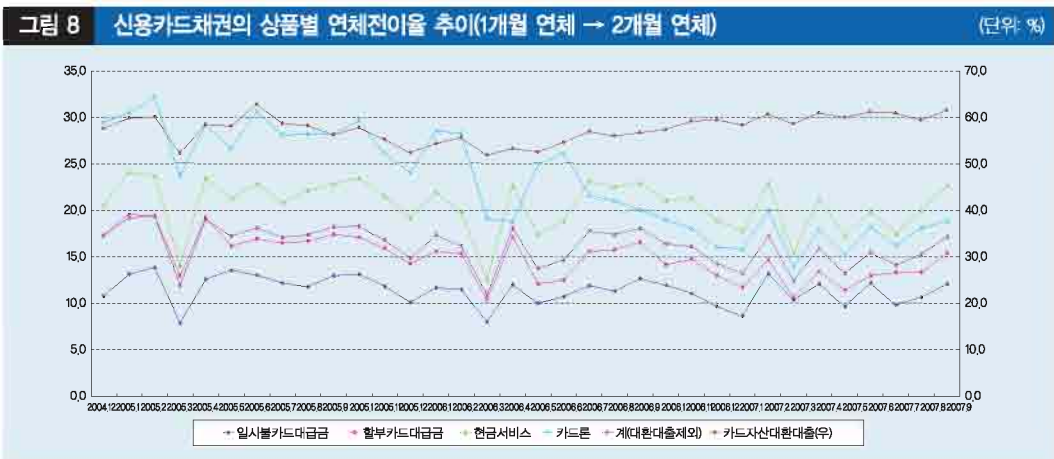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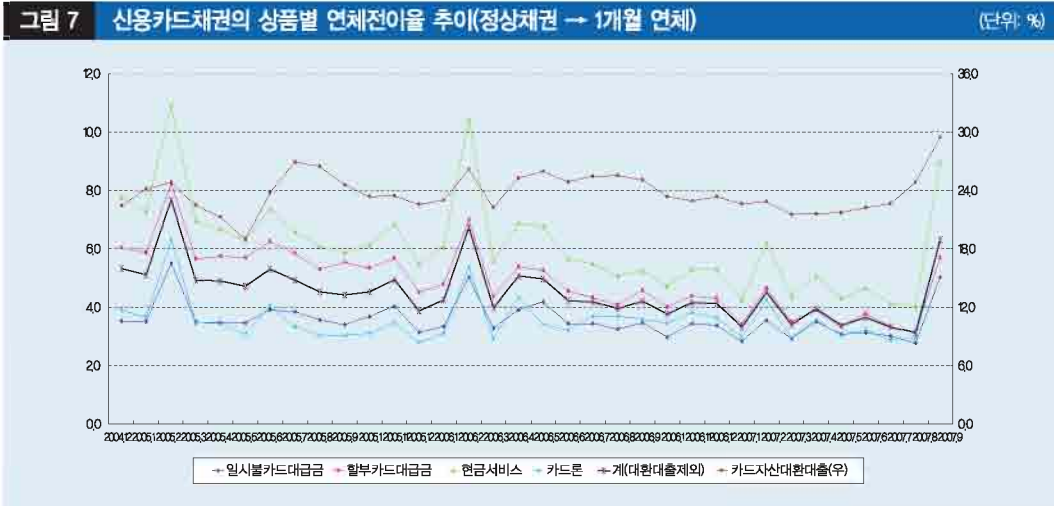
## ● 신용카드채권의 연체전이를 상승 반전

이제까지 가장 신용도가 낮은 대환대출채권 연체율분석과 정상회원에 대한 정상입금률 추이 파악 및 연체채권의 회수율 분석을 통해 개인회원 전반적인 신용도가 최근들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체전이를 분석을 통해 정상입금이 안된 연체채권중 회수가 안되는 연체기간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타 연체율이 상각, 대환 등 부실처리를 반영한 수치인 반면, 연체전이를 지표는 대환전, 대손상각전 기준으로 대환 및 대손상각으로 인한 연체잔액 감소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연체전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정상채권이 1개월연체채권으로 전이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대환대출을 제외한 신용카드채권이 대부분 2007년 8월까지 비교적 하향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월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상채권이 신규 연체채권화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2007년 8월까지 4~5%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전이율이 9월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여 9.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시불대급금 역시 3%내외에서 5.0%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대환대출의 전이율은 이보다 일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 3월 21.5%를 저점으로 하여 지속 상승하면서 2007년 9월 현재 29.5%수준으로 최근 3년래 가장 높은 수치로 악화된 상태다. 대환대출연체율 분석과 관련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위한 한계회원들의 신용도는 2007년 1분기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개월연체채권이 2개월로 이어지는 전이율을 살펴보면 정상채권이 1개월로 연체되는 전이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07년 3분기를 전후하여 증가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간별 연체율전이고정상 특징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현금서비스의 장기연체화하는 기간이 1개월인 반면 카드론은 2개월째부터 장기연체화하고 있어, 정상에서 1개월로 연체되는 비율은 현금서비스채권이 카드론채권보다 높은 반면 2개월로 연체되는 전이율은 카드론이 현금서비스를 초과(평균 카드론은 1개월전이율의 5배 및 현금서비스는 4배)하고 있어 카드론의 장기연체화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체전이를 분석에서 신용도가 낮은 회원들의 신용위험은 2007년 초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1. 관리자산기준으로 대환전환전, 대손상각전 기준으로 대환전환 및 대손상각 등으로 인한 연체잔액 감소효과를 제외한 전이율  
 2. 당월 해당 연체개월 잔액/전월 이전 연체개월 잔액, 단 기일미도액 포함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상 비율 평균



### Ⅲ. 연체율 전망과 시사점

지금까지 신용카드사의 총관리채권기준 연체율이 하향안정화되는 속에서도 최근들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채권별 기간별 입금률, 회수율 및 전이율 등의 비교적 단기적이고 세부적인 지표 추이로 확인해 본 결과 향후 추가적인 연체율 개선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는 회사별 적절한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그리고 신규 자산 확대 등을 통해 제반 연체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내 급격한 연체율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007년 말 전후의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세변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회원가입 및 사용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신용도 심사 강화(ASS, BSS의 CSS활용)와 이에 따른 적절한 신용한도 부여, 정상입금률 제고를 위해 사전적인 납입금액 안내, 회수율 증대를 위한 채권추심기능 효율화, 전이율차단 및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적립 강화 등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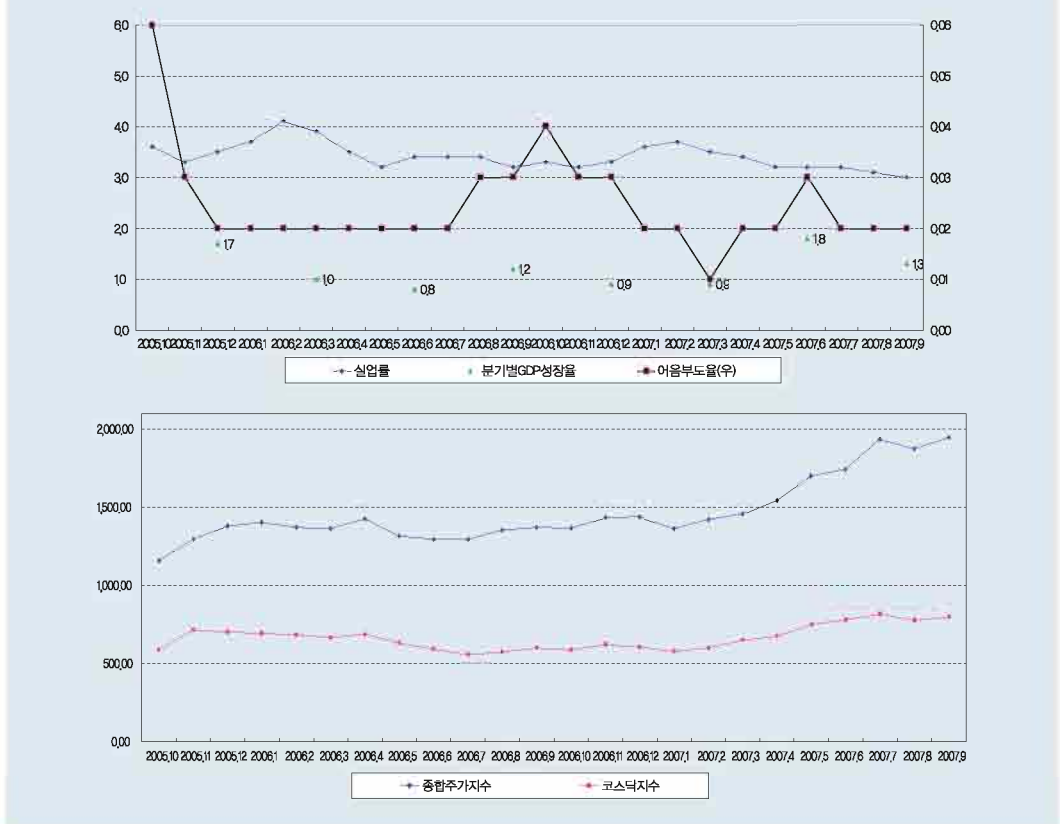
특히 카드회원의 속성상 단기적으로 신용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의 신용도와 경기변동 등을 반영한 신용한도 관리를 바탕으로 우량자산인 일시불 및 할부판매 위주의 자산운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금대출자산의 높은 운용수익율을 기반으로 무이자할부판매 실시, 회비면제와 과도한 마케팅포인트 부여 등 무리한 회원확보경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민감도가 높은 자산특성상 향후 경기전망을 비롯, 회원신용도 변화 및 회원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와 낮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 카드사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가능성 등 카드시장내 특징을 충분히 감안한 회원관리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경기진폭 확대 및 경기악화가능성에 대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및 기타관련지표(어음부도율, 종합주가지수 등) 등이 카드회원의 연체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때, 제반지표상으로는 2007년 중반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어 카드자산 전체가 체계적위험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음부도율의 경우 2007년 4분기 들어서 증가되면서 기존의 0.02%수준을 지속하던 것이 2007년 말에는 0.06%로 상승하는 한편 최근 노동부발표에 의하면 2007년중 실업급여수급자가 전년대비 12.4% 증가하는 등 제반 경기악화의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회원의 경우 은행계회원에 대비하여 전 업계 카드회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인 고객분류상 카드사 고객의 신용등급은 은행고객에 비해 평균적으로 열위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기진폭이 확대되거나 단기적으로 경기호전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고객 및 자산구성과 최근의 연체율 변화조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9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영업경쟁 지양 및 건전성감독강화 대비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회원의 제반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회원확보 등 영업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회원유치와 카드자산증가를 위한 업계의 경쟁은 카드시장의 속성상 낮은 신용도 회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은 신용등급의 카드회원들은 카드사전환에 따른 전환비용(exchange cost)이 높지 않은 반면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의 경우 전환비용이 높고 다양한 차입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력카드사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기 하강 초입단계에서의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수준을 넘는 무리한 영업확대는 카드사들에게 역선택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요 마케팅 수단인 포인트활용에 대하여 충당금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서비스한도에 대한 충당금적립 또한 강화하고 있는 데, 이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겸영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상채권, 미사용한도 및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 충당금적립률이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유지를 위해 연체율 관리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유실적 개인회원에 대한 지원강화와 법인카드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은 올바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는 건당 거래규모가 크고 관리도 용이한 반면 지금까지 살펴본 연체율 상세분석상 개인회원에 비해 월등히 신용도가 우량하고 특별히 하락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카드의 속상상 은행경영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전업사들은 시장점유율 상승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현금대출자산 축소와 리스크관리력 강화 필요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잔액기준 카드자산운용비중 중 현금성대출은 2007년 9월말 현재 45.6%(리볼빙 등 기타자산을 감안할 경우 45.0%)로 2004년말의 60.0%(61.4%)에서 개선된 모습이나, 여전히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무이자할부를 통한 신용판매비중 제고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원들로 하여금 현금대출을 사용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함에 따라 현금대출비중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0 국내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채권 신용판매비중 및 현금대출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즉, 현대카드의 경우 신용판매비중이 70%를 상회하면서 현금대출비중이 30%를 밑돌고 있는 우수한 자산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형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대형화가 현금대출자산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영향이 대환대출의 형태로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자산증가를 적극 시도하는 중소형사들은 이를 유념하여 신용판매 위주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위험이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회사마다 강화된 리스크관리능력과 안정성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 운영은 차별화된 실적과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한정**